

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2) 성황당지(城隍堂址)

예부터 성황신을 모시고 성황제를 올리던 곳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1977년에 미신이라 하여 철폐되고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변했다.

제5절 기양2리(基陽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북쪽은 신흥리, 서쪽은 소령산(小靈山)의 지맥인 망방산(望邦山) 맥이 뒷산이며, 남쪽은 기양3리, 북쪽은 기양1리다. 2013년에 마을회관이 신·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영양(影良·永陽)

1670년경에 전주 이씨(全州李氏)인 태영(泰英)과 인동 장씨(仁同張氏)인 중생(重生)이 같이 살면서 연양(軟陽)이라 하다가 마을이 늘 양지가 들어 따뜻하다 하여 영양(永陽)이라 하였다 한다.

2) 옹기점(甕器店)

1600년경에 김씨(金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토질(土質)이 옹기 굽기에 적합하여 옹기를 만들어 생활을 이어갔다 하여 옹기점이라 하였다 한다.

3) 와수골(瓦水谷)

이 마을을 개척한 이태영(李泰英)이라는 사람이 이 골에서 기와를 만들었다 하여 와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4) 회골(灰谷)

옛날 이 골에서 회(灰)를 만들었다 하여 회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5) 곱새뒤편

산등(山嶺) 모양이 곱새등과 같고 이 등에 묘를 쓰면 후손이 곱새가 난다고 하여 곱새뒤편이라 하였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50세대가 거주하며 전주 이씨(全州李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등이 주로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지(城隍堂址)

성황신을 모시고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성황제를 올리던 곳이었으나,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성황당이 유실된 후 성황제는 폐지되었다.

2) 기양저수지(貯水池)

1960년대에 와수골 안쪽에 저수지 공사가 착공되어 후에 준공되었는데 주위에 많은 굴 참나무가 무성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저수지에 담수어(淡水魚)가 많아 낚시꾼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졌으나, 최근 낚시터는 폐지되었다.

제6절 기양3리(基陽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산 능선이 덕신2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대령산맥(大靈山脈)이 마을 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갈면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작은 산과 터밭(基田)을 지나 기양2리가 있다. 그리고 금강송면 왕피리와 갈면리에서 흐르는 냇물이 합류되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곱시골(古茂谷)

1620년경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입주(入住)하여, 골이 깊고 예부터 산림(山林)이 무